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9. 18 ~ 2022. 10. 8 제271호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6·25 남침' 삭제

기독교계·교육계 비판... 정치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

교육부가 공개한 새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표현 등이 삭제된 것과 관련, 기독교계와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새 고등학교 한국사2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으며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해

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 뿐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언론회는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

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해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성명을 내고 해당 시안에 대해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고등학생 시기에 이런 교육을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들을 견고한 정치적 지지세력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GNPNEWS]



Interview



주혁로 목사(주님의빛교회, 미주 헤브론원형학교-교장)

다음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학교를 시작했어요

인본주의와 세속화로 버려진 미국 교육현실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한 교회의 도전이 주목 받고 있다. 무너져가는 미

국 교육현장에서 신음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한 한국의 헤브론원형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미주 한인 사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미주 헤브론원형학교 교장 주혁로 목사(주님의빛교회)를 온라인을 통해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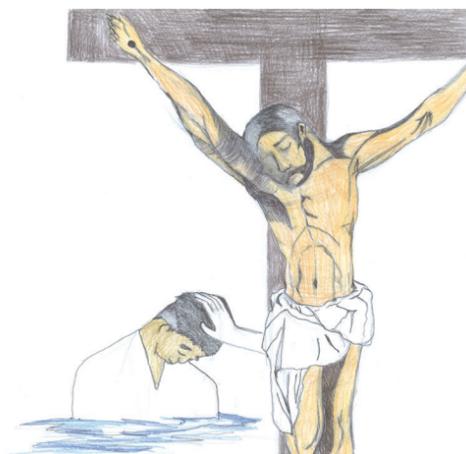
복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

주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역사는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있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처럼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완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도 의롭고 구원받는 우리도 의로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목적 때문에 불

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한 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어 의(義)를 이루고, 죄인인 우리도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사역이 열거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이 처음부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일러스트-김경선

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이루는 일을 말씀합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믿었다'는 말은

의심과 함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의 문제가기 때문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버려진 예배당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



▲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나의 몽골라 교회 성도들. 제공: 맹제관 선교사

아프리카 가나의 다곰바 지역에 있는 몽골라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 어른, 아이가 한데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 다곰바 지역은 20명만 돼도 대형교회로 불린다. 이런 곳에서 몽골라 교회는 한때 어른 50여 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이곳을 이끌던 지도자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면서 예배는 멈춰섰다. 건물

은 무책임하게 버려져 흙먼지에 휩싸여 폐허로 전락했다. 예배가 멈춰진 텅 빈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선교사가 이곳을 임대해 리모델링하며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됐다. 그렇게 몽골라 교회의 예배가 재개됐다. 보이는 예배당 안팎이 고쳐짐과 동시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서 예배가 회복되

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아름답게 빛난다.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느 12:43)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프랭클린 그래함, 미국 6개 도시서 전도 여행 개최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올 가을 미국 6개 도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God Loves You Tour)’ 투어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미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5개 주 6개 도시를 순회하는 이 전도 여행은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동성애, 젠더이데올로기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로 교육받는 다음세대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복음 앞에 설 영혼들의 심령을 미리 기경해주시고,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미국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리비아, ‘2개의 정부’ 갈등 속 유혈충돌… 내전 재발 우려

‘2개의 임시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2년여 만에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을 인용,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휴전 2년여 만에 전면전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리비아 통합정부(GNU)와 리비아국민군(LNA)으로 나뉘어 있고, 2개의 정부가 대치하는 리비아에 충돌이 멈추고 화평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온 나라가 안식하고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軍 ‘사생관 교육’ 위축… 침체된 군선교 대안 시급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군대 내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갖춘 세계관을 교육하는 ‘사생관 교육’이 최근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교육은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군대 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교육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생명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의 소명을 일깨워주십시오. 또한 죄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신중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르칠 자를 보내주시고, 침체된 군선교를 일으켜주셔서 주님의 군대를 친히 일으켜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9월 19일 ~ 2022년 10월 8일

- 9월 19일 ~ 9월 24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9.19-2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9.21~22(06-21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9.22(18시)~24(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9.23(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9.23(10-16시) ▶미주 샌프란시스코 / 조이플교회(최**)415-730-0284, 9.24(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9교회 진행중.

- 9월 26일 ~ 10월 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9.26-3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9.27(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9.27,29~10.1(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9.29(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9.30(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 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6교회 진행중.

- 10월 3일 ~ 10월 8일 10.3-5(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0.3-8(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0.6(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0.7(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0.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0.7-8(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10.7(12시)-8(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퀴어축제는 동성애 성문화를 대중에게 강요하는 시위

서울을 비롯 전국 대도시에서 동성애자들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이 이 집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 대중화이다. 동성애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듭한 서구사회에 생존 문제가 해결된 이후, 1960년대 들어 각종 ‘권리 운동’과 베트남 반전 시위 등이 나타났다. 1969년 뉴욕의 게이바에 단속 경찰이 들이닥치자 시위의 영향 하에 있던 게이(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1970년 6월, 뉴욕 스톤월 바에서 시작된 경찰의 단속에 대항한 1969년의 사건을 기념하고자 게이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1970년의 사진을 보면 단순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정도였을 뿐, 요즘처럼 나체로 낮 뜨거운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동성애자들의 행태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좌익 사상으로 무장된 집단이 개입하면서부터다. 당시 각종 ‘권리 운동’을 마르크스주의 단체들이 주도했는데, 동성애자 권리 운동을 이들 마르크스주의 단체들이 이끌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 운동이자 공산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제불세비키그룹 한국지부 사이트는 1996년에 “자본주의와 동성애 탄압”이란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1996년 노동자연대의 글에도 발췌돼 교육될 정도로 동성애 운동의 배경 사상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전 군부독재 청산을 외치던 민주화 운동권이 사라지면서부터다. 1996년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동성애자 동아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성애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이들에게 호기심과 열정을 쏟아부을만한 미개척 영역이었다. 이들은 1998년에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를 만들고, 1999년 동인련은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동인련 대표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에 합류한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곱지러운 집단이 있다.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다.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성경 해석을 뒤집기로 한다. 바로 퀴어신학의 등장이다. 또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프랑크 68혁명 이후, “게이는 좋다.”를 제

창하고, 이것이 게이인 것에 자긍심을 갖자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명칭의 뿌리가 됐다. 그리고 퀴어운동은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체해야 한다는 식의 급진 좌파 정치운동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동성애 단체들은 2001년에 아예 ‘퀴어축제’로 명명했다. 이 무렵 동성애 단체 활동가들이 등장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정당이 등장하고, 연예인들도 가담했다. 한국의 동성애 단체들이 서구에서 반사회적이어서 온건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배척받던 ‘퀴어’를 그들의 정체성으로 결정하고, 퀴어축제로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해서 생각할 부분이다. 그러나 게이 퍼레이드는 70~80년대의 평범한 거리 행진에서 지금은 음란성이 잔뜩 가미된 행사로 변했다. 한국의 퀴어축제 역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퀴어축제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볼 때, ‘공연음란’이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게이 퍼레이드는 ‘시위’ 성격으로 시작했고, 퀴어축제 역시 명칭만 축제이지 ‘시위’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들의 성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시위인 것이다. [GNPNEWS]

한누가 평론가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세대를 세우는 주혁로 목사 (주님의빛교회, 미주 헤브론원형학교 교장)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광주에서 나오 자랐어요. 그 와중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광주시 양림동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사택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친구 따라서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정신없이 놀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고3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있었는데,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어요.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썼는데 그 군인들이 내게 총을 들이대면서 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밤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됐어요.”

광주 사태로 현실에 절망하며 기도하던 중 주님 영접

- 절망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셨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 입학 전에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 저도 모르게 가입이 됐어요. 교회 선배가 내가 활동해야 할 서클이 있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일으켜 세워서 CCC 역사상 입학도 하기 전에 CCC 가입한 사람은 없었다며 박수를 치더군요. 그 다음 주에 나가지 않으면 선배 체면이 구겨질까봐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민족 복음화와 예수 제자화의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제자화를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공부를하기로 결심을 하고 졸업 후,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신대원을 다닐 때, 광주민주화쟁 기념식을 하는데 제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명서를 읽게 됐어요. 별 고민 없이 읽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를 진보적인 사람으로 분류해서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갈등이 많은 학교 생활을 마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CCC의 영향으로 이런 일에 관심 없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삶과 사회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데 당시 한국교회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 시선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 한국의 격동기에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가 1992년 5월이었어요. LA폭동이 난 한 달 후였어요. 또 얼마 안 있어서 노스리지 지진을 경험했어요. 우여곡절 속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교회개혁으로 인도해주셨어요. 그렇게 1998년에 주님의빛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 어떻게 다음세대 교육을 하게 되셨나요?
“주님께서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에서 미주에 헤브론원형학교를 세울 비전을 나눌 때도, 저는 돕겠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2009년 대통령이 되면서 동성에 교육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히 반대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미국 학교의 위험한 성교육 보며, 기독교 설립 결심
- 미국의 교육이 정말 심각하군요.
“이 일이 있는 지 한 달 후에 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교회에 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25명 됐는데,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모인 아이들이 46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외에도 관심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학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 이렇게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거군요.
“먼저 한국에서 진행되는 복음사관학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 2020년 3월에 미주 헤브론원형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헤브론원형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그대로 받아다가 사실 아무것



▲ 브라질 아웃리치팀과 함께(좌), 미주 헤브론원형학교 현장학습의 모습. 제공: 주님의빛교회

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어요. 첫 학기에 6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월에 오픈하고 2주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모두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도, 학교도 격리를 하고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주째가 됐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제발 봐 달라고 했죠. 어차피 이렇게 와서 놀 거라면 학교를 해야겠다고 싶어 3주차에는 학교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때는 한 주 닫고, 그 이후에는 또 수업을 진행했어요.”
-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2학년에서 7학년까지 모집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금을 최소한으로 정했어요.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 오면 말씀 묵상과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점심

후에는 열방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 꿈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게 쉬울 줄로 여겼어요. 그러나 학교를 하면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절감했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했죠. 그러나 작년 아웃리치를 떠나면서 주님이 위로 주셨어요. 그 장난꾸러기들이 아웃리치를 가니까 영락없는 선교사더군요. 금년에도 2번째 아웃리치를 떠났는데 일을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잘 했어요. 아이들의 언어가 완전히 변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멕시코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650명 정도가 모였고 스테이션이 17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가 주어졌는데, 아이들이 다른 스테이션을 돕느라고 우리 것은 셋팅하지 못했어요. 참여한 팀들이 각자의 스테이션을 셋팅하느라 사실 전체적인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스텝이 없었던



연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장난꾸러기가 아니구나. 복음 듣고 나가는 선교사구나.’라는 인식이 분명해졌어요.”
- 성경을 교과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양육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돼서 눈에 초점이 없는 아이도 있고, 주의력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도 있었어요. 또 한 아이는 장애 희망이 연쇄살인마였어요. 그러는 그림마다 총으로 사람을 쏘 죽이는 그림만 그렸어요. 저에게 살인마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마치 게임 캐릭터인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지금 그 아이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주의력 결핍인 아이는 말끝마다 욕을 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웃리치를 갔을 때는 단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웃리치 떠나기 전에 약을 끊기로 결단도 했죠. 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본인도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발달장애가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지금은 모범생 대열에 들었

어요. 성경도 전혀 못 외우겠다던 아이가 지금은 성경을 잘 외우고 다른 아이들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 아이들의 변화의 이야기만 들어도 감격이 되네요. 이런 일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기적이네요.
“최근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공립 고등학교에 전기 공사를 하러 갔다 와서는 놀라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실마다 동성애 포스터가 붙어 있고, 게시판에는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This is my future.(이것이 나의 미래다)’라고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하는 동안 교회가 뭘했나?’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헤브론원형학교를 시작할 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



• 6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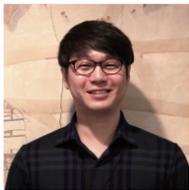


복음기도신문 창간 12주년에 부쳐

복음기도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본지 창간 12주년을 맞아 창간 무렵부터 본지 독자로서 또 필자로 편집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창간 축하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가나다순. <편집자>

“공유되며 복음과 기쁨을 나누는 신문입니다”



김동진 목사 (일산하나교회)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된 자로서 놓치지 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이기에 ‘장차 말할 성읍’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복음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기도신문이 기사마다 복음을 통과한 증인의 심정을 담은 기도를 함께 게재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할 세상 소식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든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향방이 어긋나지 않고正道(正道)로 향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오피니언 칼럼’, 죄와 허물 그리고 병든 자아가 뒤엎켜 더 이상 소망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복음 앞에 다시 서도록 이끄는 ‘복음드라마’ 그리고 열방 곳곳의 생생한 복음 선교현장을 전하는 다양한 통신 등, 이 광범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가치가 더욱 견고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통해 저와 제 주변이 감사로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생생한 복음 담은 기사들을 통해 삶의 현상이 복음과 기도에 더욱 면밀히 반응하게 되고, 온 교회가 신문이 제공하는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소식으로 받으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신문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복음기도신문의 한 칼럼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것을 보았습니다. 칼럼을 쓰신 분도 글을 공유하신 분도 제가 아는 분이지만 두 분은 일면식도 없는 듯했습니다. 한 의사가 쓴 글을 또 다른 의사가 보면서 자신의 병원이 이러한 어려운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병원이 되어야겠다며 칼럼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공유하고 그날 찾아온 몽골 청년들을 치료한 소감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음기도신문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며,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이 12년 동안 걸어온 길에 주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듯,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보 속에서 주님의 영광

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의 가치를 든 증인으로 서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김진수 장로 (트리니티소프트 대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이라는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해 지난 12년간 힘차게 달려온 복음기도신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꿈 꿀 수도 없었던 이 가슴

벅찬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섬김이 이제 열방 곳곳의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전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신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은 지난 12년간 독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칼럼과 에세이, 열방의 소식을 접하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면 매마른 심령 안에 하늘의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기도신문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낮은 곳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기도신문은 12년을 지나며 어느덧 주의 마음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 역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낮은 곳의 소식을 통해 애통해 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안내하는 선교 현장의 가이드와 같습니다.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이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몇몇 지체들의 섬김이 아닌,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15주년, 30주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한 주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는 복음기도신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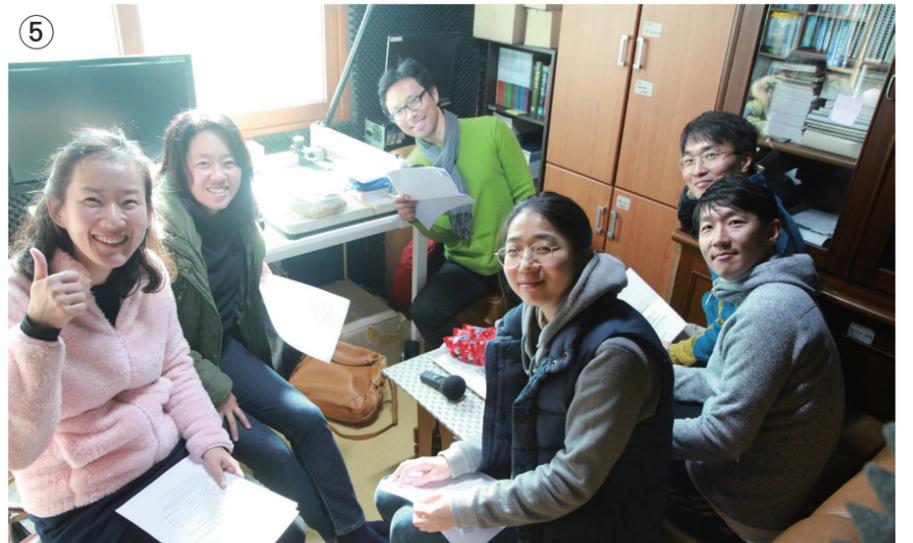
복음기도신문은 주의 마음을 담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 오셔서 기쁘게 폐간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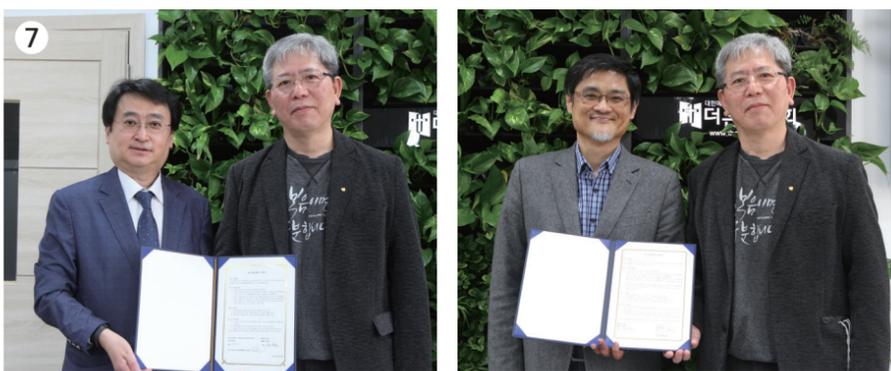


안승용 선교사 (순회선교단 대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로서, 무엇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과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① 초창기 '복음기도신문'과 발송 작업 현장 ② 복음과기도미디어 4주년 기념 사역설명회 ③ 본지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만나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습 ④ '다시복음앞에' 대회 홍보국으로 참여, 현장 신문을 발간하며 대회 소식을 전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 동역자 ⑤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에 목소리로 섬기는 사역자와 동역자



⑥ 2020년 복음기도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예배 ⑦ 미주 크리스찬타임스, TGC코리아와 업무 협력 제휴
 ⑧ 복음기도신문 편집위원 회의 ⑨ 제2회 316전화 상담자 워크숍 개최 ⑩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신문 발송 작업 현장

군인들,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승리의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지휘본부와 지휘관들이 전장의 상황과 적군의 움직임을 알 수 없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 몸 된 교회들의 소식이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열방의 한편에서는 난민들의 죽음의 소식들과 동성애와 낙태, 자살과 이혼 등으로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들에게 체포되거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배당이 불타고 목숨을 잃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소리가 하늘에 울리고, 소위 '한강의 기적'만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선교행진이 힘차게 진행되어 왔듯이, 세속화된 유럽 한복판에서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한 형제들의 소식과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는 믿음의 사자후가 선포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이 시대의 파발마이며, 왕의 명령을 전하는 보발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기도신문 발간 초기에, 길거리에서 쭈뼛거리며 전도하던 제게 복음기도신문은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전도지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지도를 펼쳐 놓고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판이었으며, 때때로 낙심되어 있을 때에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주님의 나팔소리였습니다. 복음기도신문과 함께 달려온 지난 12년은 주님의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바라는, 복음기도신문이 마침내 역할을 다하여서 기쁘게 폐간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폭풍 성장기에 든 신문,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상윤
 미술평론가
 (본지 뷰즈인아트 필자)

저것 대단한 변화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불철주야 섬겨주신 미디어팀은 물론, 기도로 든든한 토대를 쌓아주시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의 지난 12년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는 전 세계를 격변에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부터,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에까지 크고 작은 의

교, 경제, 문화, 교육의 사건들 속에서 녹록지 않은 시기를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12년은 복음기도신문과 동행하시고, 격동 속에서도 폭풍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뷰즈 인 아트’의 필자로 신문과 함께했던 저의 지난 11년도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딸로, 연구자로, 선생으로 생애 가장 폭풍 같은 기간을 복음기도신문과 지냈습니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 연구가 난항을 겪으며 마주한 어려움, 관계에서 겪는 고통, 육신의 한계, 절필하고 싶은 정도로 격렬했던 나와 의 싸움 등, 막다른 골목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놀랍게도 번번이 주제 작품이 나타나고, 쓸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같이, ‘뷰즈 인 아트’의 원고 또한 목상을 통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문의 기사 한 줄 한 줄 또한 동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과 좌충우돌의 시간을 지나며, 창간 12주년을 맞이하는 복음기도신문에 오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행 23:11) 지경을 넓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기도신문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소영 작가
 (본지 칼럼니스트)

복음기도신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 3:15)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복음기도신문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역시 복음기도신문을 건네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도배되는 세상에서 진짜뉴스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때도 자신 있게 복음기도신문이 진짜라 말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기도신문을 만난 이후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향 없이 기도하던 제가 북한을 위해, 난민 문제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은 복음기도신문 덕분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 신문 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날도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2주년을 맞이까지 기도하고, 발로 뛰며, 수고의 땀을 흘린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음기도신문처럼 증인의 삶,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삶... 제가 속한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GNPNEW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7)

복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왔다

어둠이 세력을 키워 겨자씨 같은 빛을 덮으려 해도 어둠은 절대로 빛을 덮을 수 없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죄악은 반드시 정리되게 돼 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모독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나는 살아있는 한 모든 기회를 다해 이 만행을 온 천하에 알릴 것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성경을 가지면 불태워 죽였다. 모든 교인들은 영혼 없이 낫 빠진 사람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을 때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평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었고 오늘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안다. 이제 는 속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왔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반드시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반하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양심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는 결코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다. 마틴 루터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외쳐야 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다른 곳에 설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고 누룩 같아도 그 나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며 누구도 더럽힐 수 없다.

십자가 부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승리



일러스트=이예환

케 하시고, 진리로 결론 내게 하시고, “예수면 다다!”를 외치게 하신다. 이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

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 역사를 바꿀 것이며 열방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는 썩지 않

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복음은 영광스럽다!

보편타당한 세상의 권력이나 교권, 유행, 시류에 따라서 겁에 질린 채로 떠밀려 갈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겠는가. “주님, 복음으로 사기 치거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생명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 편에 섰는가?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섰는가? 내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나라의 편에 서겠는가? “오 성령님,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소서.” (2018년 6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3면에 이어 Interview

돈들여 공립학교 보내는 것,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

아이들의 학교 입학 여부를 부모들에게 결정하게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인들에게 강권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는 잘 할지 몰라도 지금 영적인 감수성은 완전히 퇴보했어요. 청소년부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30%나 된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인정하려면 아이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에 직면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게 정말 두려운 일 이네요. 반드시 교육 영역을 복음으로 사수해야겠군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들이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 보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내죠. 그러나 학교에 가면 욕을 배우고, 동성애나 반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요. 부모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우리들은 매일 눈으로 보면서 느껴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만 봐도 심각함이 느껴져요. 우리가 헤브론원형학교를 시작하



▲ 북한 나진·선봉 지역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제공: 주님의빛교회

기 전에 있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 부모가 교인인데도 교회를 떠나 더군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이 일을 10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 들이고 정성들여서 공립학교에 보내면 마귀 자녀를 만든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 너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제가 아무리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어의 장벽을 느껴요. 교육은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와 금요일에 드리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을 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도 살고 선교지도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교회의 미래가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당장의 현실밖에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음세대가 부흥하면 소망이 있죠. 헤브론원형학교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선교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열매잖아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급한 마음에 순종하고 뛰어 들었는데, 지금은 장래의 선교사님들을 날마다 보는 영광에 빠져 있어요. 이런 영광을 모두 맛봤으면 좋겠어요.”

-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는 저도 역시 선교지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는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떠난다고 선포하고, 후임 목회자와 헤브론원형학교를 담당할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4년도에 복음학교를 하고, 이후 선교관 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급한 마음이 들어서 무작정 압록강으로 갔어요. 단동에서 압록강 따라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만난 북한 사역자를 통해 북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북한 안에서 외국인끼리 모여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 오토 워버어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문이 닫혔죠. 아무리 문이 닫혔다 해도 북한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하는 사역과 같은 마음을 품은 복음에 확정된 사역자가 제 후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헤브론원형학교 아이들이 용감한 정예병 과정(졸업 이후 2년간 단기선교 나가는 것)에 대해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두려움이 살짝 줄어들었는데, 용감한 정예병 기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한 복음 앞에서 마음이 확정되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복음의 능력

거룩한 그릇으로 드리라!

눈 멀고 무지한 죄인이여, 눈에 안약을 넣고 밝히 보라. 변명을 집어치워라.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지식을 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낮추라. 그러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 더러운 죄인아! 음란한 것을 보지 말며 간음을 마음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당신을 거룩한 그릇으로 그분께 드리라. 이제까지는 더러운 죄 안에서 뒹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단정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다스림에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까지 더러웠지만 그분이 당신을 씻기시리라 (계 1:5).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은 내가 세우려고 했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전부 흔드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묻는 질문과 기도에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네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도 내게 신실해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 같구나. 너 말이 너무 많다.'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기뻐하며 5개월 합숙 신앙훈련인 복음사관학교에 입소했다.

훈련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1인실 숙소를 주세요." 진짜 절없는 간구였다. 숙소와 화장실을 보았다. '이런데서 사람이 산다?' 작은 방을 여러 명이 사용하고 내게 배정된 사물함은 두 칸이었다. 숲속에 있는 훈련소이기에 벌레도 많았다. 벌레가 내게 떨어질



일러스트=고은선

까봐 침낭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잤다. 지켜야 할 규칙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되어 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부딪힘이 올라왔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이 먹기 위해 운동을 했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살찌는 것이 두려워 다이어트와 운동을 늘 병행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할 때 먹을 수가 없었다. 밥은 늘 맛있는데 많이 먹을 수 없으니 '나는 식탐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인해야 했다. 총체적인 복음과 성경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또한 내 마음과 삶은 어떤 노력이나 훈련으로 개선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하나님은 매일 묵상 말씀마다 '십자가'를 말씀해주셨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내가 내 원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은 모

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었다.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그 옛 자아가 죽은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순종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지난 훈련기간을 돌아보면, 십자가가 실재가 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십자가를 말씀하실까봐 제대로 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어리석은 시간이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순종할 것을 말씀해주셨다. 복음사관학교의 섬김이로 불려주셨다.

하나님의 인내와 겸손은 늘 교만하고 고집 센 나를 굴복하게 만드신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이 기대된다.

[GNPNEWS] 이지현



교도소 내 北 성도들, 집중적인 고문 대상 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 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교도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인 고문에 노출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교도소 내 반인륜적 범죄들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다고 확신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이 발견됐

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는 북한 지도부와 사상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 정치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조직적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으며, 구금 중에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고문을 당하며 인간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 교도소 고문 실태를

증언한 사람들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 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체포와 투옥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구금되기가 쉽고, 구금된 뒤에도 더욱 끔찍한 대우를 받는다. 구금됐던 한 북한 기독교인은 온송단기노동교화소(집결소)에 투옥된 수감자 중 50~60%가 중국에서 기독교 예배에 참석한 뒤 체포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구금기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하며,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북한 정권에 반하는 행동들을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며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연구 분석 사업자들은 "2022년 박해지수 발표와 함께 지난해 북한의 반

동사상배격법이 발표되면서 폐쇄되는 가정교회의 수가 폭력에 대한 박해지수가 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GNPNEWS>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높다는 입장이 유엔에 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선원 강제복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복송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 북한 교도소 내 성도들이 고문에 노출되어 있다. 출처: 오픈도어 선교회



워크숍
지상중계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은 무료 상담전화인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앙 상담 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가졌다. 강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심리문제인가 정신질환인가?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2)

전화 상담만으로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통해 영적인 문제인지 또는 정신질환의 문제인지를 가능케 하는 일은 전문가의 경우에도 쉽지가 않다.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적 이해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신경발달장애다. 우리는 태아에서부터 뇌신경이 발달하기 시작해 뇌의 영역에 따라 20대 초반까지도 발달한다. 신경이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시냅스)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며, 신경세포의 수초화 과정 등을 거친다. 이러한 뇌의 신경 발달 과정에서 결함이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를 신경발달장애라고 한다.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틱 장애 등이 신경발달장애에 속한다.

다음으로 정신병이라는 분류 안에 들어가는 질환들이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질환들이다. 정신병에는 조현병, 망상장애,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병적 우울증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신경증이 있다. 여기에는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신경증적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섭식장애, 그리고 중독질환 등이 해당된다.

네 번째로는 신경 인지 장애가 있다. 신경이 퇴행하면서 신경에 결함이나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치매나 섬망이 여기에 해당된다. 섬망은 수술을 하거나 신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노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계속> [GNPNEWS]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돼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 선원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복송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2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국제 인권법, 국제 조약 등에 잘 정립된 원칙"이라며 "강제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유엔에 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선원 강제복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복송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안전, 안보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N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앤디 워홀의 <서른은 하나보다 낫다>

유일무이하고 복제될 수 없는 특별함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르네상스 거장 다빈치 <모나리자>의 신문 사진을 30번 반복한 이 작품은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것이다. 워홀은 반복을 통해 대량생산 시스템을 언급했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물건들은 같을 수 없고 차이가 나기 마련이지만, 기계로 생산된 물건은 외양이나 품질이 전부 동일하다. 물건이 대량으로 복제되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량복제 시스템에 감격했던 시기가 있었다. 1920년대 소련과 1960년대 말의 서독이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부르주아가 독점한 예술은 대량생산과 복제 시스템을 통해 민중에게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다. 1960년대 말 학생운

동이 한창이었던 서독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반복하는 팝아트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었던 미술을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좌절로 바뀌었다. 워홀은 처음부터 미술을 대중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캠벨 수프, 마릴린 먼로, 모나리자 등, 대중 매체가 생산하는 이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한 워홀의 작품은 정교하고 견고한 미국의 생산 시스템을 언급만 할 뿐, 비판은 하지 않았다. 또한, 팝아트 역시 다른 회화와 똑같이 희소성을 띤 채, 신전 같은 미술관에 서, 거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위치에 올랐다.

팝아트 중에서도 최고가를 자랑하는 워홀의 <서른은 하나보다 낫

다>는 모순되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가진 아우라(aura)이다. 아우라란, 단 하나의 원본만이 가지는 힘이다. <모나리자>를 촬영한 흑백 사진의 맛깔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복제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럿 중 하나가 아닌, 유일무이하고 복제될 수 없는 특별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럿 중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꽃이 되게 하신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앤디 워홀, <서른은 하나보다 낫다(Thirty are better than one)>, 1963, 실크스크린, 110x94.5인치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미얀마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십시오!

스무 살이 되면 미얀마를 떠나 한국에서 하게 될 대학 생활에 들뜬 마음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폭풍은 미얀마에 나를 계속 가둬두는 것만 같았다. 대학 합격 후, 코로나로 첫 학기를 전면 비대면으로 보내야 했고 미얀마에 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한국에 입국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내 평생을 산 미얀마와의 이별 준비만을 잘하면 될 것 같았다.

1월 31일 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느긋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 날이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음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여느 때와 같이 핸드폰을 켜 후 확인한 한국 포털에는 낯익은 단어인 '미얀마'로 가득 차 있었다.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 군부 독재', '미얀마 아동 산 수치 감금'.

2월 1일, 총선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이 정권을 이어가야 했던 승리의 날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출해내기 시작했다.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수치 여사와 NLD 의원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가 들어서기 전 국민들이 군부 아래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이 끔찍했다는 것을 미얀마에 살아본 누구라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의 단합은 점점 강해져 갔으며 이내 하나둘씩 거리로 나와 직접적인 쿠데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 화력은 한순간에 뜨겁게



▲ 미얀마의 시위대와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BBC World Service 캡처

번지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함께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나간 나는 평생 미얀마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했다. 모든 도로는 시위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보이며 그들과 한마음을 표했다. 시위자들의 함성은 뜨거웠지만 사실 누구보다 처절한 절규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암흑과 고통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발악이었다. 워낙 국민들이 강하게 일

어났기에 이는 승리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도 함께 심어졌다.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간다면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때까지는...

2월 9일, 군부가 시민을 상대로 첫 총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접

에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거실에 모여 숨죽여 있어야만 했다. 부모님의 선교본부 쪽 상황은 더욱 위험한 상태였으며 당시 교회들을 지키던 현지 제자들 또한 극심한 두려움에 힘들어했다. 시위자와 군인. 옷만 벗기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비슷한 나이대와 외모를 가진 청년들이 한순간의 쿠데타로 인해 적이 되어버린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팠다. 많은 이들이 죽었다. 여전히 미얀마인들은 목숨 바쳐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를 위해.

미얀마에서의 마지막 두 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그곳에 두어 그 순간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 같다. 미얀마를 떠나고 보니 이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많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누가 저들의 비명을 들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한 날 작고 약한 자이다. 나에게에는 권력도, 지혜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가장 정의로우시고 강하신 분께 간구하는 것뿐이다. 주님, 저들을 구하십시오! 저들의 절규를 들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미얀마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십시오! [GNPNEWS]

Kim. H.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8. 17 ~ 9. 2 (가나다 순)

개인
강종재 권혜령 김광희 김숙자 김애심 김영순 김원숙 김정희 김지영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삼연 이영옥 이주선 이진희 장미자 정요한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최점옥 무명

교회 및 단체
GNG선교센터 감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복음가득교회 새순교회 샘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에그교회 은강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을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